

‘일본열기’ 언제까지 계속되려나

옥석혼재의 관련서 쏟아져… 전문기획서에 눈돌릴 시점

조양욱

전 국민일보 도쿄 특파원 · 고려원 일본문화연구소장

지난달 중순 도쿄에 들렀던 길에 도쿠마(徳間), 추오코론(中央公論) 등 몇몇 대형 출판사를 찾아가 보았다. ‘오음 진리교’라는 신종교가 저질렀다는 지하철 독가스 살포사건 등으로 인해 일본사회 전체가 떠들썩한 시기였던지라 책의 판매동향이 궁금했다. 아나나 다를까, 모두들 고개를 꺾어 저으며 죽는 시늉을 했다. 그러니 어느 사회나 오십소백(五十笑百)인 셈이다. 신문 기사의 제목이 커지면 커질수록 서점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줄어들게 마련인 것이다.

점사점사 두어 군데 서점도 둘러보았다.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서가 앞을 메우고 있었다. 밤을 꼬박 새우며 영업하는 것으로 유명한 롯본기(六本木)의 그 서점—이름을 잊어버렸다—도 우중(雨中)의 야밤임에도 적잖이 붐볐다. 그들 서점의 한국 관련서적 코너. 종류가 다양할 뿐더러 시대의 변화를 체감케 하는 또하나의 현상이 눈에 쉬 드러났다. 예전 같았으면 언감생심, 눈치 살피기에 급급했을 한국 비판서가 당당히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의 《추한 한국인》 1, 2권을 필두로, 제법 지한파(知韓派)를 자처하던 이들의 저서에 이르기까지.

한·일 양국의 대표 선수격인 두 책

서울에서 이따금 들르는 서점의 신간코너. 지난 1년여 동안은 갈 때마다 한두종씩 일본 관련서가 늘어나 사람을 놀라게 했다. “아, 이제 비로소 우리의 일본 연구도 본격 케도에 올라섰구나” 하는 안도감과 더불어, 하지만 천만의 말씀, 자세히 따져보나마나 열렁뚱뚱 급조된 인상을 풍기는 책들이 더 많다. 남의 성공을 흉내내, 그래서 차라리 ‘종이가 아까운’ 함량미달의 책들. 사정이 그러하므로 한일 출판계가 피장파장, 난형난제인지 모른다. 불황에 허우적거리면서 고작 짜낸다는 피가 시류에 영합하여 무임승차나 하려는 알뜰한 상술 말이다.

이래저래 두 나라에서 봄을 이루는 상대쪽 관련서의 대표선수격이 되고 만 《일본은 없다》와 《추한 한국인》. 지난 5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한 심포지움에서까지 이 두 책은 언급되기에 이르렀다. 한일 언론노조단체가 공동주관한 ‘해방 50년 기념 한일 언론인 심포지움’에서 주제발표에 나선던 하라 토시오(原 壽雄) 전 교토(共同)통신 편집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16 출판저널

“《추한 한국인》이 일본에서 커다란 화제를 뿌리고 《일본은 없다》가 한국에서 1백만 부를 넘는 초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런 상황은 과거 50년 동안 쌓아 올려온 상호이해와 정보교류의 하나의 도달점을 시사한다. 두 책 모두 과장이나 사실 오인, 일방적인 해석이 있는 듯하지만, 지금 이같은 책들이 널리 읽힌다는 사실은 한·일 두 사회에 패인 골이 깊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동시에 2개의 내서 널리 읽히게 될 위험을 느끼지 않을래야 않을 도리가 없다.”

필자로서는 하라씨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기는 어렵다. 우선 두 책은 집필된 동기부터가 사뭇 다르다. 《일본은 없다》의 경우, 저자의 독특한 시각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한 개인의 체험과 관찰이 거저에 깔려 있다. 그러나 《추한 한국인》은 일부러 가공의 한국인을 앞장세운 것부터가 의도적인 폄훼가 목적이었음을 입증하고 남는다.

그렇지만 이 자리의 테마는 우리 출판계의 무분별한 ‘일본 돌풍’을 짚어보는 취지인지라 이쯤해서 시선을 안쪽으로 돌리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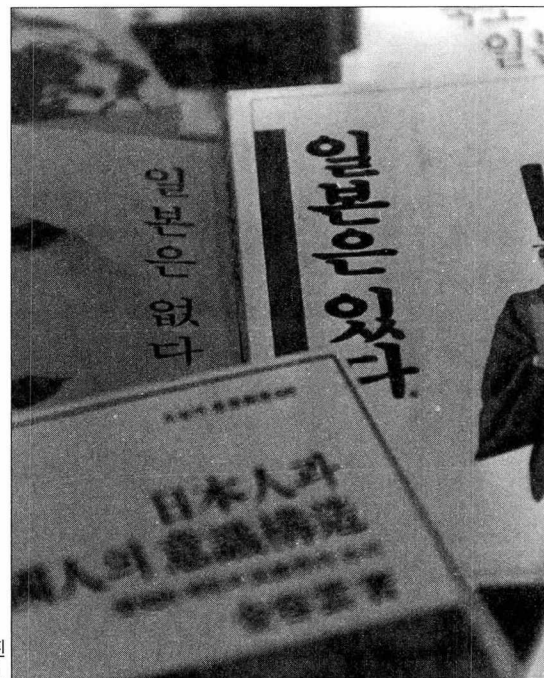
이제는 전국민의 80% 이상이 50세 미만(1995년, 통계청 추정치)인지라 ‘한글세대’라는 용어를 들먹이기조차 쑥스럽지만, 여하튼 일제의 직접 체험이 없는 한글세대는 그만큼 더 얽한 반일교육을 받고 자라났다. 그것은 반공교육에 버금가는 무게로 뇌리에 각인되었다. 그런 교육의 효과는 우리의 시각을 외곽으로 몰들여, 일본이라면 항용 ‘머리’(=이성) 보다는 ‘기슴’(=감정)으로만 인식토록 길들여졌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같은 분위기는 출판에서도 나타나 광복 후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손으로 쓴 일본론의 흥작으로 이어졌다. 그나마 대중적 관심을 조금이라도 끈 것은 지일(知日) 작가 김소운의 빼어난 저작들과, 오소백의 《일본 상륙기》, 이도형의 《벗꽃은 피려는가》 등 언론인들이 쓴 체험기가 고작이었다. 이처럼 숫제 황무지 같았던 일본론 출판은 이어령의 《축소지향의 일본인》이 나온 1980년대 초까지 계속되었다. 일본에서 먼저 간행된 이 책은 일본인들의 찬탄을 자아냄과 동시에, 광복후 한국인이 쓴 첫 본격 일본문화 비평서로 꼽을 만했다.

그후 매스컴의 극일·지일 캠페인에 자극받아 화석이 된 역사 속의 일본’이 아닌, ‘살아있는 경제대국 일본’을 조명할 저술이 하나 둘 선보이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후반이었다. 이

‘반 일본’ 이든 ‘찬 일본’ 이든 우리 잣대에 의한 일본서의 출간은 다다이선이라 여긴다. 분풀이 차원의 논저나 침소봉대의 감상서들은 그 진정한 본색을 드러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법이다. 광복 50년, 한일수교 30년인 지금 출판계가 관심가져야 할 대상은 전문기획서다. 명(明)을 짚은 연후(年)에 암(暗)을 살피는 독서가 필요하다.

80년대 후반부터 쏟아진 ‘일본열기’ 관련서들.



런 류의 책들은 그간의 오랜 반일교육에서 보자면, 일본을 지나치게 미화한 것으로 비치기 십상이었다. 더구나 인쇄매체보다 훨씬 파급효과가 막강한 TV 방송이 ‘일등국가 일본을 파헤친다’ 류의 현지 취재 다큐멘터리들을 앞다투어 안방으로 내보냄으로써 ‘반일’과 ‘지일’의 틈바구니에 끼인 보통 사람들의 갈등, 혹은 스트레스는 알게 모르게 쌓여만 갔다.

거창한 정반합(正反合)의 논리에 기대지 않더라도, 다중적(多象的) 스트레스는 계기만 주어지면 이내 해소의 물꼬를 트게 마련이다. 때마침 중군위안부 문제가 야기시킨 반일 무드가 혼수를 들고, 말초적 카타르시스를 채우기에 안성맞춤인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빅히트가 ‘일본 알레르기’에 맞불을 질러 《일본은 없다》를 단숨에 스타덤에 올려놓았다. 이 대목까지는 그러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불거졌다.

진정 구해야 할 ‘일본讀法’이란

반일감정에 주눅들어 올바른 일본연구서 하나 구경하기 힘든 시절에도 잘 팔리는 일본 책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번역해대던 몰염치가, 이번에는 이치에 맞건 말건 억지로 두드러 맞춘 날림 서적을 내놓아 독자들의 시선을 어지럽혔던 것이다. 제철 만난 메뚜기라듯이, 광복 50년이라는 시류에 얽혀 당분간 더 이어질 그같은 옥석혼재(玉石混在)의 일본 열

기는, 가뜩이나 ‘있다’ ‘없다’의 실익 없는 논쟁에 갈피조차 못잡는 독자들의 입씨름만 더할 게 뻔하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반(反) 일본’ 이든 ‘찬(贊) 일본’ 이든 우리 나름의 잣대에 의한 일본관련서의 출간은 다다이선이라 여긴다. 굳이 사족을 달자면, 그런 책들의 가치는 상대를 진정으로 ‘설복’ 혹은 ‘굴복’시킬 수 있는 내용이나 아니나의 여부에 따라 판가를 날 따름이다. 오직 ‘망언’이란 것에 대한 분풀이 차원의 논저나, 당의(糖衣)를 걸쳤을 뿐인 침소봉대의 감상서들이 본색을 드러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법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일본 독법(讀法)’은 무엇인가. 광복 50년, 한일수교 30년인 지금, 출판계로서는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일본 해부서, 그것도 백화점식 교양서보다는 전문기획서에 눈돌릴 시점이다. 그러지 못할 양이면 “젓가락 하나 더 놓자”는 그릇된 심사의 ‘열기 편승’이라도 그만두어 종이 기근이나마 덜어줄 일이다. 독자들에게는, 격(格)이 있는 연후의 파격이라야 멋이 있다듯이, 기왕이면 일본의 ‘명(明)’을 짚어 본 뒤 ‘암(暗)’을 살피는 순서로 독서 프로그램을 짰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카타르시스만의 추구는 ‘약’은 커녕 ‘독’으로 스며들 우려가 훨씬 크겠기에.